

“봉사·장학사업으로 활동 확대”

출범 35년·800회 법회 여는 부산불교거사협회

법회 800회, 부산 불교도의 기둥이 되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는 부산불교거사법회의 자력은 35년간 이어온 법문의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

1972년 7월 31일 부산 영도 도서관에서 들려온 금강경 독송 소리는 현재까지 이어져 감모수를 갈구하며 찾아다니는 제가자들과 법문의 현장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불교거사법회는 35년 전 고승 효봉 스님이 인정한 백봉 김기추 거사(1908-1985)의 ‘금강경 독송회’ 강연과 불교신문(당시 대한불교) 부산 지사장 고(故)양홍모 씨가 주도한 가운데 부산 남산 불자 20여명으로 시작됐다.



2002년 6월 11일 법회를 마친 부산불교거사협회 회원들이 통도사 부산 포교원에서 상임지도 법사인 종범 스님과 기념촬영했다. 부산불교거사법회는 8월 14일 부산 초량동 소림사에서 800회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와 소림사 등에서 자체 법회를 봉행하다 대중법회로 거듭났다.

경봉 스님을 시작으로 석암, 향곡, 고암, 청하 스님 등 가라성 같은 스님들의 법문이 이어졌고 이기영 박사, 홍정식 교수, 김지건 박사 등 불교학자들의 깊고 수준 높은 강연도 법석을 채웠다. 1972년 창립법회 후 부산불교거사법회 법회에서 법문한 법사는 스님 125명과 제가자 23명 등 총

148명에 이른다.

현재 부산불교거사법회는 부산 초량동 소림사 큰 법당에서 중앙승가대 총장인 종범 스님과 조계종 승가대학원 원장인 지안 스님을 상임지도 법사로 모시고 매월 둘째 화요일에 <금강경> <육조단경> <화엄경> <유마경>을 강설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제방의 큰 스님을 초청

오후 7시에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매년 두 차례씩 사찰을 순례하며 야외법회를 개최한다. 현재 14·15대 회장을 연임하고 있는 배호암 회장은 “사찰 문턱을 넘는데 다소 소극적이던 남성들을 하나 둘 법당으로 인도함으로써 비로소 불자로서의 역할과 신행이 고루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늘의 거사법회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산실이 되고 있다”며 현재 거사법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식의 단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속 실천의 단계로 일궈내야 한다”고 강조한 배 회장은 “앞으로 법회를 이어나갈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과 장학사업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 회장은 “정법구현, 생활불교, 대중포교에 앞장서고자 노력하는 부산불교거사법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051)442-1280

행하고 매년 두 차례씩 사찰을 순례하며 야외법회를 개최한다. 현재 14·15대 회장을 연임하고 있는 배호암 회장은 “사찰 문턱을 넘는데 다소 소극적이던 남성들을 하나 둘 법당으로 인도함으로써 비로소 불자로서의 역할과 신행이 고루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늘의 거사법회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산실이 되고 있다”며 현재 거사법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식의 단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속 실천의 단계로 일궈내야 한다”고 강조한 배 회장은 “앞으로 법회를 이어나갈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과 장학사업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 회장은 “정법구현, 생활불교, 대중포교에 앞장서고자 노력하는 부산불교거사법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051)442-1280

하성미 기자

“문화재 거래 신뢰성 제고”

문화재청,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제정 선포식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최근 문화재 매매업의 기준을 강화한대 이어 8월 2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중준)와 공동으로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제정 선포식’을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개정 문화재보호법에서 도난·도굴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 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으며, 바람직한 유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권고안’을 마련했다. 윤리강령에는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여 거래하며 △불법이 의심되는 문화재는 거래하지 않으며 △문화재의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유지하며 △문화재를 허위 평가하거나 매매하지 않는다는 결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화재청은 “윤리강령 제정으로 문화재의 유통 문화가 바람직하게 조성되어 국민들이 문화재 매매 시장을 신뢰하고 문화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101개 시·군·구에 921개 문화재 매매업체가 활동 중이다. 여수형 기자

사찰 매화나무 ‘천연기념물’ 된다

백양사 고불매 등 4건 지정 예고

단아한 꽃과 깊은 향기로 사찰에 기품을 더하는 매화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장성 백양사의 고불매(古佛梅)와 구례 화엄사의 매화(梅花), 순천 선암사의 무우전매(無憂殿梅) 등 4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호남5매(湖南五梅) 중 하나로 꼽히는 장성 백양사의 고불매(古佛梅)는 수령 350년 정도로 높이는 5.3m, 줄기 둘레는 1.47m이다. 담홍색 꽃을 피운다. 구례 화엄사의 매화(梅花)는 수령 450년 정도로 추정되며 나무높이는 7.8m, 줄기 둘

레는 1.51m에 이른다. 화엄사 길상 앞 앞 경사지에서 자라고 있다. 순천 선암사의 무우전매(無憂殿梅)는 수령 600년 정도로, 선암사 무우전과 팔상전 주변에 심은 20여 그루의 고목 매실나무 중 가장 아름다운 수형을 보이고 있다. 고려시대 대각사가 중창한 선암사의 상량문에 의하면 와룡송(臥龍松)과 함께 심어졌다. 이 밖에 강릉 오죽헌의 울곡매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 이들 매화나무는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학자와 일반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여수형 기자

대성사 ‘선남선녀 인연맺기’ 행사

충북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가 칠월 칠석(음력 7월 7일)을 맞아 8월 19일 ‘선남선녀 인연맺기’ 행사를 개최한다.

19일 오후 2시 막을 올리는 이번 행사에는 그간 대성사를 통해 인연을 맺은 48쌍의 부부와 예비부부가 참석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선남선녀 인연맺기’에 참가하는 미혼남녀들은 레크리에이션과 게임 등을 통해 짝을 찾고, 사찰 주변 장유산을 등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낼 예정이다. 또한 ‘부처님 인연법과 만남’을 주제로 한 박영학 前 육천교육장의 강의로 마련된다. 여수형 기자

화흥어린이도서관 여름방학 특강

수원시 북수동 화흥어린이도서관(관장 이정)은 여름방학을 맞아 글쓰기, 페이스페인팅 배우기 등 다양한 특강을 마련한다.

도서관이용자초등학교 1~6학년(대상)은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14일 글쓰기, 종이공작 핸드폰용 만들기 △15일 풍선아트, 나만의 액세서리 만들기 △16일 글쓰기(1~3학년), 페이스페인팅 배우기 △17일 글쓰기(4~6학년), 메이킹북 만들기 △18일 글쓰기(1~3학년), 동양부채 만들기 △19일 외국인과 함께하는 생활영어 등으로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월정사, 목사님들과 족구 대회

신부님들과 족구로 친선을 도모했던 평창 월정사 스님들이 이번에는 목사님들과 한판 족구 시합을 벌였다.

월정사(주지 정법)는 8월 4-5일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둔치 체육공원 내 특설코트에서 ‘제3회 오대산 월정사 주지배 강연회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월정사는 지난해까지 지역 신부님들과 친선경기를 벌였으나 올해는 제한 지역에 거주하는 목사님들과 자웅을 겨뤘다. 남동우 기자

JTS, 북한동포 긴급구호 캠페인

국제기아·질병·문맹퇴치기구인 JTS(Join Together Society) 국제구호단체(이사장 법륜, 이하 JTS)는 8월 7일 해운대 해변에서 ‘생명 가진 자들에게 평화와 생명을’을 주제로 캠페인을 개최하고 발대식을 열었다.

이러 캠페인에 참가한 정법회 JTS 회원 30여명은 북한의 기아 실정을 알리고 옥수수 1천 톤을 모아 함경북도 지방에 기증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였다. 모금 운동은 백중회합일인 8월 27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거리에서 이루어진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성보박물관 기획展

박수근 미공예 작품 첫 선

가난한 사람들의 여진 마음을 담기 위해 평생을 살아온 박수근 화백의 미공예작 ‘졸넙기 하는 아이들’이 통도사성보박물관 기획전실에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최초로 공개된다.

작품 ‘졸넙기 하는 아이들’은 가로 30cm, 세로 40cm로 여러 명의 아이가 졸넙기하는 모습이 거의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50년대의 가난하고 힘든 삶을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킨 박수근 화백은 ‘20세기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월정사 김진조 선생의 기증 회화전을 마련해 도상봉의 ‘추경’, 오지호의 ‘도원’, 천경자의 ‘타지마할’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람료 2000원. (055)352-1001

하성미 기자

피랍 한국인 무사귀환 ‘한마음’

부산종교인평화회의, 7대종교 대표자 모여 조기석방 촉구 기도회

“죽음의 공포에서 그들을 구하소서”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 정각)는 8월 7일 부산 광장호텔에서 7대종교 대표인들이 모인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피랍 한국인 조기 석방 촉구 기도회’를 열고 한국인 인질 21명을 석방,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협박하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비난하고 세계 평화와 피랍인들의 무사귀환을 발원했다.

정각 스님은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에 억류되어 공포와 죽음의 긴장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피랍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바라만 볼 수가 없어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 성직자들과 신도 대표들이 모여 기도하게 되었다”며 개최 의의를 밝혔다. 정각 스님은 이어 “탈레반 세력에 무참히 살해된 2명 희생자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8월 7일 기도회를 열고 아프가니스탄 피랍 한국인의 조기 석방을 기원했다.

의 명복과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필요한 바를 얻고자 하는 탈레반의 행위는 이우를 불문하고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기도회에서 정각 스님, 자인 스님 그리고 정영문 목사, 박용호 신부, 송윤복 부산시유도회 부회장

남, 박오권 천도교 교구장, 박차귀 천도교 선도사, 최신길 원불교 교무는 “종교는 다르지만 서로간의 믿음을 존중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피랍인들이 무사히 석방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쌍계사 벚꽃길 ‘아름다운 길’ 선정

하동 쌍계사 벚꽃길과 보성 대원사 진입로 등이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됐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은 건설교통부가 해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하동 쌍계사 벚꽃길이 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벚꽃과 단풍으로 뒤덮인 백양사 진입로’, ‘대원사 진입로 왕벚나무 터널’, ‘내소사 전나무 숲과 오색대풍 나무 어우러진 길-내소사 진입로’

‘푸르른 속으로 가는 길-송광사 진입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보성 대원사의 진입로는 길이 5.5km로, 길 양 옆으로 20년생 왕벚나무가 심겨져 있어 벚꽃이 만개하는 봄철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보성군과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대원사 진입로에 대한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형 기자

대한불교금강총림 전국 대덕스님 초청 (소년소녀가장돕기) 불국정토 건설을 위한 대법회

종교지도자가 바로 서야, 사회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것이다. 혼탁한 사회를 바르게 인도 할 올바른 종교지도자 육성이 현시대적 간절한 요청임을 정법 큰스님께서 지적하시고 종교, 종단, 종파를 초월해 시대적 요청에 맞는 총림불사를 서원하시어 금강총림이 그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총림의 3대 원력을 세워 이 시대 종교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 하셨습니다. 이를 근본으로 하여 불국토 건설에 풀 뿌리가 될 수 있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국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불교의식을 장엄하게 행사할 시킴으로써 대중들에게 불교의 위상과 불퇴전의 보리심을 고취시키고 불국토 건설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이에 전국의 불자들이 모두 금강총림으로 모여 큰스님의 살아있는 참 가르침을 듣고, 장엄한 불교의식의 참모습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일반불자들에게 대대적인 대법회를 통하여 거룩하고 웅장한 불멸(不滅)의 향연(饗宴)을 보여줘 불퇴전의 보리심을 고취시켜 불국토 건설의 장을 열어 금강총림을 알리고, 불자들의 근기를 키우며 금강총림 불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께서는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대법회에 무루 참석하시어 불국토 건설에 동참하시기를 서원하옵니다.

- 총괄본부장 : 도 봉
- 사업추진위원 : 조 암 정 암 도 석 이 화 성 원
벽 봉 광 덕 덕 영 이경희 노철래
김삼열 금화형

금강총림 금강사 터의 유래

신라 시대 이전은 성자께서 수행하시고, 당시 금강사라는 사찰이 있었다고 고려 초에 소실된 사고(寺古터)로서 도산비기와 정감록에 이르기까지 10승지 중 제1승지는 소백산 금계총 진굴이며 신전(新千) 7년 정진(正眞)이 나타나 800년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예언되었다. 진굴이란 진령굴을 말하며, 신전(新千)이란 새로운 천년 즉 2,000년을 뜻하며, 정진인 여 정(正)이란 바를 정 을 뜻하며, 진(眞)이란 참 진, 인(人)이란 사람을 뜻하므로 사람이 참되고 바르게 진리를 지키는 것이 즉 ‘정법’을 뜻하는 것이다.

정법 석혜원 큰스님의 발자취

큰스님께서는 1974년 경봉 큰스님을 은사로 국악원에서 득도하시고 1977년 월공 대조사 스님을 은사로 받게 수지.

25년간 토굴수행을 하시고 1998년 태백산에서 단식 60일 정진 후 총림불사 시대 원력을 서원 하시고 인고의 세월 10년에 이르러 현 대한불교 금강총림 천년계 화엄도량 대적불사에 원찬한 초석을 이루셨다.

(큰스님 심향상)

- 절대적으로 믿으라 - 내자를 꾸어라 - 빈 마음으로 와라

- 일 시 : 2007년 9월 1일 (음력 7월 20일) 오후 1시 ~ 4시
- 장 소 : 대한불교 금강총림 총본산 소백산 금강사
- 식전행사 : 세계 최고의 진악국악관현악단이 펼치는 창작 불교음악 시연
- 본 행사 : 불국토의 메아리 - 사회 이현아 (불교TV이문세) 어린이는 일체의 중생을 일깨우고자 부처님 참 진리를 소리로 형상화 시킨 불교의식을 재현하는 장. 법고 | 중흥 | 법매 | 의식염불
- 불국토의 향연 -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수행하는 수행자의 고뇌와 번뇌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장. 승무 | 비리춤 | 불무도
- 불국토의 향기 - 수행자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일체중생을 위해 기도하는 장. 찬불가 | 기도 및 축원염불
- 문 의 :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711번지 금강사 전화 054)638-6546 / FAX 054)638-6545 http://cafe.daum.net/sobacksan
- 버스승차 : 세종문화회관, 삼성동 한국전력공사앞 (2007년 9월 1일 오전9시 출발) ※기타지역은 금강사로 문의하시면 무료로 차를 보내드립니다.